



자녀교육비, 체계적인 대비 필요

정인영 연구원

요약

■ 최근 자녀교육비 규모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 이러한 교육비 부담은 노후준비 부족과 저출산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. 따라서 교육자금은 부모와 자녀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. 교육보험은 이러한 교육비 부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. 이에 최근 들어 기존 교육보험에 투자성을 높인 변액교육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다.

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
- 지난 10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82.7%, 사립대의 경우 57.1%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31.5%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남¹⁾.
-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40대의 79.8%와 50대의 79.7%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²⁾.

■ 이러한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 및 노후대비 부족 등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.

-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해 책임 의식이 강하며, 이는 양육 부담을 크게 하여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.
 - 보건사회연구원조사(2009)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의 89.9%가 자녀의 대학졸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.

1) 김상희 의원실

2) 통계청 사회조사(2010)

- 또한 취학 전 영유아기 6년간 5,404만 원, 초·중·고등학생 12년간 1억 3,989만 원, 대학생 4년간 6,811만 원 등 자녀 한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는 출생 후 대학 졸업 시까지 22년 동안 총 2억 6,204만 원으로 추정됨.

● 자녀의 교육비 부담은 부모의 노후 준비가 소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, 향후 자녀 양육과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.

-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로 211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후 대비 저축은 월평균 1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,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³⁾.

-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70.7%에서 2010년 36.0%로 크게 감소하였음⁴⁾.

-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5세 이상은 생활비의 44.9%, 63~74세는 13%, 50~54세는 4.7%를 자녀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생활의 자녀 의존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.

- 향후 고령화 진전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
■ 따라서 교육자금은 부모와 자녀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여 부모의 노후준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음.

● 현재 자신의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자녀교육비와 노후자금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재무 설계가 필요함.

- 자녀교육비는 예상되는 인상률을 감안하여 규모를 설정하고,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함.

- 이때 부모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노후자금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.

● 예·적금, 펀드, 신탁 등과 더불어 교육보험은 교육비부담 리스크 경감을 위한 목적자금 마련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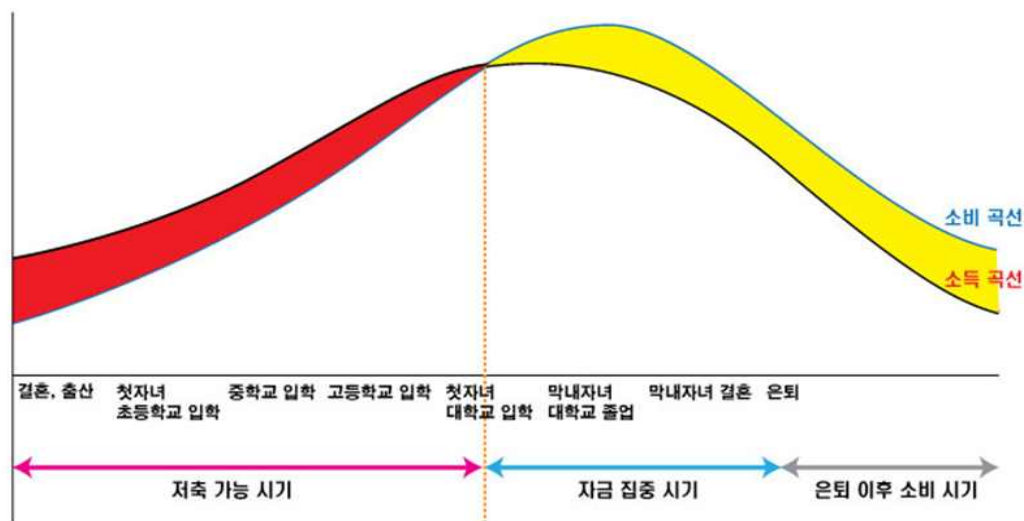
■ 교육보험은 타 금융상품에 비하여 자녀교육비 마련 목적에 집중하며, 부모와 자녀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.

3) 서울대 노화·고령사회연구소(2010)

4) 통계청 사회조사(2010)

-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서 자녀의 진학 시기에 맞춰 필요한 학자금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함.
 - 최근에는 교육비 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보다는 자녀의 성장 사이클에 맞춰 체계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음⁵⁾.
 - 다양한 특약 부가로 자녀의 각종 질병·재해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부모의 사망 또는 사고 시 보험료 납입 면제혜택과 더불어 교육 자금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.
 -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나 조기해약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.

〈그림 1〉 부모의 라이프사이클과 자녀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교육자금의 체계적 준비



- 기존의 교육보험이 제공하는 공시이율이 교육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투자성을 높인 변액교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 - 대부분의 상품은 주피보험자를 자녀가 아닌 부모로 설정하여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망과 자녀교육비를 보장하고, 자녀가 성인이 되면 비과세 증여를 통해 피보험자를 자녀로 교체하여 자녀의 사망보장과 목돈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음.
 - 특히 연금형 상품의 경우 자녀교육비로 활용되고 남은 적립금을 부모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자녀의 교육자금과 부모의 노후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음.
 - 장기적으로 운용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할 수도 있으나 원금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. [kiri](#)

5) 예를 들면, 적성진단비(2세), 컴퓨터구입비(5세), 학원비(7~18세), 진로상담비(14세), 영어캠프자금(15세), 배낭여행비(19세), 어학연수비(21세), 결혼준비자금(29세) 등